

우주생성원리 '영' 과 '기' 의 역동성으로 표현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당초문→영기문 ㉞



고려청자 암막새의 무늬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초문(일본, 한국), 만초문(중국), 넝쿨무늬(한국)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어서 각각 다르지만 모두 넝쿨식물을 가리키는데, 그 모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고려청자 암막새의 무늬에서 시작점을 찾아보기로 하자. 그 시작점은 (㉞) 이런 모양이다. 이것은 제1영기씩이 두 개 이어져서 생긴 조형이다. 여기에서 '제1영기씩' 이 방향을 서로 바꾸어 전개한 것이 암막새 영기문의 골자(骨子;본질)이다.(그림 ①). 즉 이런 조형의 전개를 '영기문의 전개'라 한다. 그러면 영기문(靈氣文)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계속하여 암막새의 무늬를 분석해 나가기로 한다.

위하여 이 세 가지 조형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원리를 찾아내기까지 수많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조형을 선묘하고 채색분석(彩色分析)하였다. 그 원리로 그 이후 수많은 영기문들을 조금도 오차 없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단순한 기라는 말보다는 그것을 더욱 강조하여 '영묘(靈妙)한 기'라는 의미로 '영기(靈氣)'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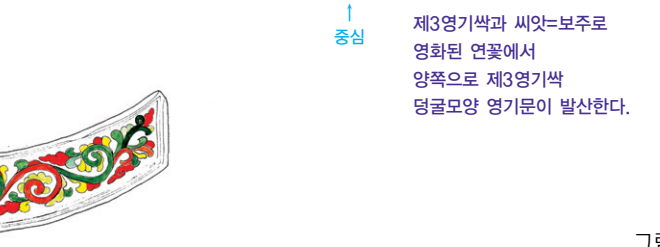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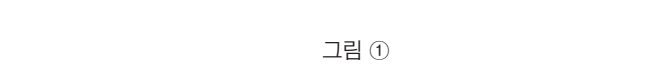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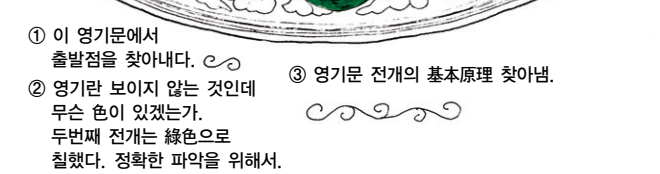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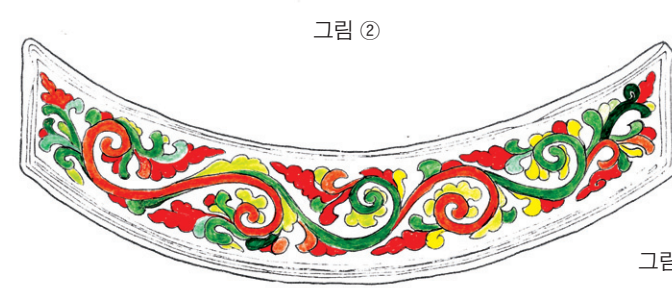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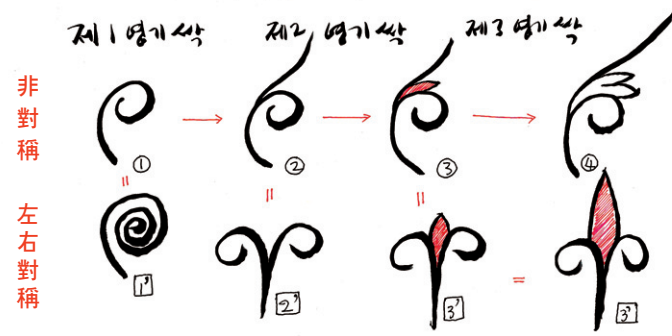
즉 영이란 말은 중요한 것으로 기와 합쳐져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리키게 되었다. 영기는 간단히 말하면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가리킨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주에 가득 찬 여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 혹은 영기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인류는 문명의 발상 때부터 우주에 충만한 기를 감지하여 조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특정한 모양이 아니어서 표현원리만 지키면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다. 옛 사람들은 영적(靈的)인 인간이어서 눈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타락한 현대인에게는 기를 조형적으로 현실에서 보는 비슷한 자연의 모습을 이끌어 이름을 붙여서 오류를 범해왔다. 이에 새로이 '영기문(靈氣文)'이라 용어를 만들었으나 영기문은 통칭이요,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하나하나씩 용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영기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서 명칭을 만든 용어들이 가리키는 조형 보다 훨씬 더 많고 그 의미하

도상으로 표현된 영묘한 기운

동양에는 '기(氣)'라는 개념이 문명의 발상 때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기를 표현한 조형'이 '기'라는 문자'를 만들었을 때 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져 왔음을 알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노자'에 있는 말처럼 '최초에 혼돈이 있었는데 그 혼돈에서 가장 으뜸가는 일원(一元)의 기가 생기고, 그 일원의 기가 양기(陽氣)와 음기(陰氣)로 나뉘고,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탄생시킨다.' 등 우주생성론의 역동적 이야기들이 나온다.

구태여 말한다면 '제1영기씩'이 양기에 해당하고, '제1영기씩에서 생긴 제2영기씩'이 음기에 해당하고, '제3영기씩'은 그 음양의 조화에서 일어나는 만물의 생성을 가리킨다.(그림 ②) 나의 이론을 정립하기



는 바가 커서 그것을 밝히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당초문이란 말 역시 수많은 당초문들을 통칭으로 가리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기를 조형화한 일체의 것을 영기문이라 통칭하여 대응시킨 것이 '당초문→영기문'이라는 이 연재의 제목이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여 서술하여 나가기로 한다.

암막새에 담긴 영기씩의 비밀

고려청자 암막새의 영기문은 추상적인

것이며,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차차 구상적으로 변하지만 자세히 보면 구상적인 영기문 가운데 추상적 영기문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져 있다. 암막새 영기문의 시작점은 '제1영기씩 둘이 연결된 ∞ 모양'인데 여기에서 출발하여 제1영기씩이 방향을 바꾸어 가며 전개하여 가다가 주어진 한정된 공간이어서 어느 시점에서 중지한다.

그다음 그 기본 틀에서 갖가지 형태의 작은 결까지 영기문, 즉 생명의 싹을 나타내는 영기문들, 즉 제1, 제2, 제3영기씩들이

씩터서 주어진 암막새의 공간을 가득 채운다.(그림 ③) 그러므로 암막새의 공간이, 영기가 충만한 우주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 암막새의 영기문은 만물을 탄생시키는 근원이 되며, 그런 우주생성론의 엄청난 의미를 암막새가 웅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재에서는 생명이 생성하는 긴 과정을 단계적으로 채색분석한 것을 모두 실을 수 없다. 다만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만 실는다. 그러면 수막새의 모란꽃 같은 조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꽃인가? 누구나 모란꽃이라 부르는 것을 모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하는데 5년이나 걸렸는데 그 문제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영화된 꽃' 즉 '영기꽃'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한다.(그림 ④) 즉 통일신라의 기와에서 보듯이, 수막새의 용이나 연꽃(영기꽃)의 양쪽으로 영기문이 펼쳐나가는(그림 ⑤), 고려 청자기와에서도 영화된 모란모양 영기꽃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을 보여준다.(그림 ⑥) '용'이나 '연꽃모양 영기꽃'이나 '모란꽃모양 영기꽃'은 모두 만물의 근원이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藥 이 되는 사찰음식

'죽순' 비만 예방... '오미자' 혈액순환 개선 효능

오미자 효소 소스를 곁들인 죽순채와 소면



△재료(4인 기준)
죽순 100g, 미나리 100g, 숙주 200g, 목이버섯 20g, 소면 200g, 청·홍고추 1개씩, 차커리 약간
○ 오미자 효소 소스 : 오미자 효소 5큰술, 간장 3큰술, 물 3큰술, 식초 1큰술

△만드는 법

- ① 죽순과 미나리, 숙주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행귀 각각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한다.
- ② 목이버섯은 채 썰어 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한다.
- ③ 소면은 삶아서 찬물에 잘 행귀 후 작게 사리를 만든다.

- ④ 분량의 오미자 효소와 간장, 물, 식초를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 ⑤ 접시에 차커리를 깔고 밑간한 채소를 잘 섞어 가운데 담고, 그 주위를 소면으로 둘러가며 담은 뒤 청·홍고추로 장식한다.
- ⑥ 먹기 직전에 소스를 뿌려 고추 섞는다.

죽순전

△재료(4인 기준)

죽순 100g, 우리밀가루 약간, 곱고송 홍고추, 맛기름(식용유, 깻잎, 마른 고추, 생강), 소금

△만드는 법

- ① 죽순은 살짝 데쳐서 0.5cm 두께로 저



며 썰어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해 둔다.
② 달궈진 팬에 맛기름을 두르고 죽순에 밀가루를 얹혀 노릇노릇하게 구워낸다. 이때 홍고추를 곱고송으로 얹어 장식한다.
③ 맛기름 만드는 법 : 바닥이 두꺼운 팬에 식용유 한컵과 마른 고추, 생강을 넣고 뜨겁게 데운 후 마지막에 깻잎을 넣어 향을 낸다. 차게 식혀서 기름망으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맛기름은 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죽순과 오미자의 효과

입맛을 돋우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죽순은 당질과 단백질, 섬유소가 풍부해서 비만 예방에 좋다. 특히 죽순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체내의 과다한 염분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더욱이 좋은 식재료이다.
죽순은 생으로는 사흘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기에 채취 후 끓는 물에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오미자는 예로부터 신경독의 작용을 억제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어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액 과다 분비를 억제하여 위장병에도 좋다고 한다.

오미자효소는 생오미자에 설탕을 넣고 절여 만들거나, 말린 오미자에 설탕시럽을 부어 만든다. 이때 레몬과 약간의 소금을 넣게 되면 오미자의 색이 더욱 고와지고 단맛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석 달 정도 숙성기간을 거쳐 오미자 원액만 걸러서 병에 두고 보관하여 음정수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사용한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180,000원

새로운 **비방법!** 더욱 강력해진 **방편술!**
일체 마장을 **소멸**시키고, 고통받는 인간 만사를
단번에 풀어내는 **방토법 대공개**합니다.

天氣福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百超律曆學堂
041)943-6882/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